

[TV]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Each column lists program titles, times, and channel numbers.

“다워” 화려한 휴가’ 거센 대박몰이

“소나기 피하자” 한국영화 속속 개봉 연기

개봉 11일만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한 ‘디 워(D-War)’와 400만명을 불러 모은 ‘화려한 휴가’ 두 편의 대작 한국영화가 장기간 흥행 태세에 돌입하자 당초 8월 둘째·셋째 주에 개봉할 예정이던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일을 연기하고 있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일 개봉 예정이던 윤진서 주연의 공포영화 ‘두 사람이다’도 개봉일을 23일로 2주 늦추고 당초 23일 개봉할 예정이던 이지원 주연의 ‘죽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도 개봉일을 30일로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우선 8일 개봉 예정이던 정준호·김민희 주연의 코미디영화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사진)는 개봉일을 22일로 2주 늦췄다.

원래 이달 중순 개봉 예정이던 탁재훈·염정아 주연의 코미디물 ‘내 생애 최악의 남자’도 이달 말로 개봉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의 제작사인 태연엔터테인먼트 측은 “‘화려한 휴가’와 ‘디 워’의 흥행 질주를 위해 개봉일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한국영화끼리 경쟁을 벌이는

‘디 워’나 ‘화려한 휴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들 영화는 두 국산 블록버스터의 흥행 돌풍이 워낙 거세 이들 틈바구



니에서 개봉관을 잡는 데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박스 관계자는 “‘디 워’나 ‘화려한 휴가’와 맞붙을 경우 큰 재미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개봉일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8월 말쯤이면 ‘디 워’나 ‘화려한 휴가’의 흥행 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제 이주 고려인들의 끝나지 않은 아픔

15일 KBS2 ‘추석 60분’, 강제 이주 70년 특집방송

구 소련 해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15개국의 독립국가가 탄생하면서 무국적자가 된 고려인들은 집이 없어 들판에서 잠을 자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오고 있다.

15일 방송되는 KBS 2TV ‘추석 60분’은 고려인 강제 이주 70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

Living TV section with program listings for '세상 속으로' and '세상 속으로 (오후 1시30분)'. Includes a small image of a person.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 MHz) advertisement. Includes program schedule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13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주요방송 (FM 92.0 MHz / FM 99.5 MHz) advertisement. Includes program schedule and website information.